

부고

총신대 전 총장 김의환 박사 소천



10일 소천한 김의환 박사

총신대 전 총장 김의환 박사가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순천향의대 부속 순천향병원에서 향년 77세로 별세했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특2호실이며 발인예배는 14일 오전 7시에 열린다(02-2227-7500).

김의환 박사는 미국 칼빈신학교를 졸업하고(B.D.)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신학원에서 역사신학을 전공하였으며(Th.M.), 템플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그 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도전받는 보수 신학」, 「복음과 역사」, 「기독교회사」, 「성경적 축복관」, 「현대신학개설」, 「복음주의 선교 신학 동향」 등 많은 저서를 펴냈다. 미국 나성 한인교회 담임 목사와 총신대학교 총장, 성북중앙교회 담임목사, 칼빈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고 김의환 박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지인들이 조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화환을 보냈다.

‘국가 기도의 날’, 나라와 조국 · 교회 · 가정 위해 기도



남가주 교계 지도자들이 6일 국가기도의 날을 맞아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최악의 경제위기... “지금은 미국 위해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장 14절)
미국의 제59회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National Day Prayer)인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린 연합 기도회에서 남가주 한인 크리스천들이 국가와 교회, 가정 등을 위해 기도했다.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지용덕 목사), 자마(대표 김춘근 장로),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이정현 목

사)가 주최한 이번 기도회는 지용덕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때’라는 제목으로 이정현 목사가 설교한 후 기도했다. 설교에서 이목사는 “예레미야가 나라를 잃은 아픔에 통회했고 후에 다시 나라를 재건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우리들도 제2의 조국인 미국을 진정 사랑하고 기도하는 애국 행동을 해야 한다. 최악의 경제 위기와 낙태, 동성애의 천국이 되어가는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은사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자”고 전했다.

이 목사의 설교에 앞서 L.A. 남성선교합창단이 은혜로운 성가곡을 연주했으며 진유철 목사가 자신과 미국의 죄를 위한 회개기도로 국가를 위한 기도시간이 시작됐다. △자신과 미국의 죄를 위한 회개기도(진유철 목사, 나성순 복음교회, 교협 부회장)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박효우 목사, 풍성한교회, 목사회 부회장) △성경적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김철민 장로, CMFM, JAMA 가정사역 대표) △공립학교와 각급교사들의 영적회복을 위한 기도(정영희 목사, 월서연합감리교회) △영화, TV(방송), 인터넷, 언론

계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변영의 목사, 변영장로교회, 목사회 부회장) △대통령, 장관들, 행정부, 대법원 판사들, 상하양원과 군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김재연 목사, 세계비전교회, 교협 부회장)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시장을 위한 기도(송정명 목사, 미주평안교회, 성시화운동 LA대표) △한인 교회들, 2세들, 175개국에 흩어진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위한 기도(방동섭 목사, 미주성산교회, 교협 부회장) △고국을 위한 기도(신승훈 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등의 기도가 이어졌다.
(이태근 기자)

영국도 기독교 박해 국가? 목회자 체포 잇따라

동성애 죄로 설교했다 구금당해

영국에서 동성애를 죄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목회자가 체포되는 일이 발생해, 현지 종교

자유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컴브리아 워킹턴에서 사

역하고 있는 데일 맥알파인(42)목사는 최근 길에서 설교하던 도중 동성애가 죄라는 한 동성애자의 질문에, “동성애는 우상숭배, 신성모독, 간음, 술 취함 등과 같

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죄악”이라고 답했다.

질문을 한 동성애자는 곧바로 한 인권단체에 그를 신고했고, 이 단체 관계자에 이끌려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은 맥알파인 목사는 “타인을 학대하고 고통을 유발했다”는 혐의를 부과 받았다. 맥

알파인 목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그를 구금했고, 7시간 가량을 감옥에서 보낸 맥알파인 목사는 보석금을 지불한 뒤에야 풀려났다.

홀즈 목사 역시 설교를 하던 현장에 있던 동성애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다 이같은 일을 당했다. 홀

즈 목사는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고 대답했는데, 당시 경찰은 홀즈 목사에게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증)를 부추김으로써 사회 균형을 깨뜨렸다”는 혐의를 씌웠다.
(순천정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LEE & KENT
LAW OFFICES OF LEE & KENT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지난 20년간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종합법률그룹으로서
고객 한분 한분께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상법 / 소송	파산법	이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 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 ▶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회사 설립, 계약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신용 문제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종교비자&종교이민, 가족이민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대표변호사 이문규

- LEE&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법 전문변호사
- Univ. of Minnesota 법대 (J.D)대학원 졸업(1983년)
-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정회원
- 연방법원 및 세법관할 정회원 변호사
-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회원
-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담당)
- 미주 상공인 총 연합회 고문 변호사
- 국제 Law Firm Couderc Brothers 근무
-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 외 수천 건 해결

이문규 법률그룹
LAW OFFICES OF LEE & KENT
대표전화 213-380-2828
IRVINE 949-442-8370

<p>LA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p>	<p>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p>	<p>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904호 822-510-5200</p>
---	---	---

연방법원, 대통령 취임식 기도 반대 소송 기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1월 20일 거행된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란 문구가 포함된 취임 선서를 했다.

“특정 종교 전도 행위 아닌 역사적 전통”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무신론자들이 제기한 대통령 취임식에서의 종교적 요소 반대 소송을 기각한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9년 마이클 뉴도우가 주축이 된 무신론자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기도를 비롯해,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란 문구를 포함한 선서를 제외할 것을 촉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지방법원은 취임식에서 앞서서 이들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고, 이에 무신론자들은 항소에 나섰다.

그러나 8일 미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 제니스 로저스 브라운 판사 등은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고려할 가치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뉴도우 등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뿐 아니라 전임 대통령들의 취임식과 관련해서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다가 이번과 같이 기각당한 바 있다.

브라운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을 문제 삼기로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며 “그의 취임식에서 이뤄진 기도와

기독교적 선서가 합헌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원고 측에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연방법원에서 다루야 할 현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도우 등은 대통령 취임식에서의 기도와 종교적 선서가 정교분리를 명시한 연방헌법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며, 특정 종교에 대한 전도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브라운 판사는 “취임식에 어떤 요소를 포함시킬지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며, 그 어느 누구에게도 권한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취임식에서의 기도와 종교적 선서는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뿌리를 둔 표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향후 차기 대통령들의 취임식과 관련해서도 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판례를 세웠다. 2009년 1월 20일 거행된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는 미국 보수 교계와 진보 교계의 대표적 인물인 릭 워렌 목사와 조지프 로워리 목사가 기도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취임선서 때 사용했던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다. <손현정 기자>

■ 주말 폭우로 다운타운 저지대 침수, 한인피해 상황 집계 중

내슈빌 100년 만의 대홍수, 한인교회 발벗고 나서

지난 주말 100년 만의 폭우가 미국 테네시 주 내슈빌을 강타해 수천 명이 집을 잃은 가운데, 한인들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틀 만에 약 15인치 폭우가 내리면서, 테네시 주 내슈빌 다운타운 저지대와 컴벌랜드 강 일대가 물에 잠기고, 고속도로가 폐쇄됐으며, 호텔 투숙객과 양로원 거주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컴벌랜드 강을 끼고 있는 내슈빌 도시의 특성상 다운타운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인업체 중 세탁소, 음식점 등은 지붕까지 물이 차오르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 내슈빌의 상징적인 건물, 오프리랜드(Opryland) 호텔의 1층이 완전히 물에 잠겨 식물원 등 내부 시설이 침수되고, 투숙객들이 배로 구조되기도 했다. 이번에 겪은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약 반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토요일부터 3일 일요일

밤까지 내린 비로 거리와 주차장들은 강처럼 변해 버렸다. 비가 그친 7일 오전 현재, 침수된 집이나 사업체의 복구작업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6일 저녁을 기해 시정부에서 정상적으로 도로를 개방했지만 아직 학교도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

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지난 토요일(2일) 오후 1시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제가 결혼식장으로 가려고 집은 나선 오후 2시경에 벌써 도로가 물에 잠겨 있었다”고 했다.

한 집사는 “다행히 한인교회

과 프랭클린 지역, 밸류 지역이 완전히 침수됐고, 미국에서 이라크 군을 파병하는 군부대의 70%가 침수피해를 입었다”면서 “군인과 결혼한 한인 분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인사회와 접촉이 없어서 정확한 파악은 어렵겠지만, 예상보다 한인들의 피해가 꽤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12개의 토네이도를 몰고 온 이번 폭풍우는 금요일 밤 아칸소 주에서 시작되었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토네이도와 폭우는 토요일 미시시피, 캔터키, 테네시 주로 이동했다. 느리게 이동하면서 월요일에는 북조지아에 폭우가 내려 피해를 입었다.

현재 각종 한인단체에서 한인들의 피해를 총 집계 중이다. 테네시한인봉사회 전삼의 목사(이사장)는 “어제 공문이 각 한인교회로 보내졌다. 아직 접수된 피해 상황은 없지만, 한인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권나라 기자>



내슈빌 다운타운 1번가의 모습

로 전염병 위험 때문에 소독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슈빌한인감리교회 한의호 집사는 “내슈빌에서 내린 비는 정말 심각했다. 한 번도 이

의 피해는 거의 없지만, 한인들은 곳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이 불어나면서 다운타운 아래 지역인 메디슨 지역

미국 교내 왕따 자살현상, 사회적 문제로 대두

교회에서 존중하는 분위기 만들어줘야... 반 왕따 법안 상정 등 움직임

최근 왕따로 인한 청소년의 자살이 늘면서 미국 내 관련 법안까지 통과되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청소년 사이의 왕따 문제는 인터넷 소셜 문화가 발달하면서 더욱 만연하고 있으며, 학교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페이지,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실 새 없이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 미국 법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왕따 피해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43%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미연합감리교단지(UMNS)에서는 최근 이 같은 왕따 사건을 다루면서, 교회에서부터 청소년들끼리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해 주는 왕따 금지 캠페인(anti-bullying campaigns)이나 왕따 금지 구역(no bullying zones)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주정부에서도 늘어만 가는 피해사례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메사추세츠 디벌 패트릭 주지사는 “모든 아이들은 학대와 괴롭힘이 없는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할 자격이 있다”고 전했다.

<권나라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학 광고국장 : 이안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0403 / 팩스번호 : (213) 739-0408
주소 : LA/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패티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www.rosehills.com

저렴한 가격과 가까운 장례식장을 원하신다면...

품격있는 명품 장례식- 로즈힐 장례 서비스

한국인 직원들이 한국어 서비스로 편리하게 도와드리며 로즈힐만의 100여년 전통과 노하우로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묘지에서 장례식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 LA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한인 장례 매니저의 친절한 맞춤 서비스
- 300명까지 수용 가능한 6개의 아름다운 채플
- 종교에 따른 다양한 예식 • 저렴한 장례 관 가격

ROSE HILLS Memorial Park & Mortuaries
Rose Hills Mortuary Whittier #FD970

본사(한국어 직통) | 1-888-848-8707 브레이크점 | 562-809-7027
세리토스점(한국어문의) | 1-877-767-8850 정의 & 장례보림 562-809-7027

비전스쿨 강현구 교수, 9일 학부모 세미나서 강연

“꿈 실현하려면 구체적인 비전을 글로 쓰라”



강현구 교수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비전을 글로 쓰기'에 대해 설명했다. ©이태근 기자

스콧 아담스는 최고의 만화가가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최고의 만화가가 되겠다'는 글을 쓰며 만화 기제를 위해 신문사의 문을 두드렸고 수많은 도전과 좌절 끝에 세계 최고의 만화가 중 한사람이 됐다.

데이브드 J 스왈츠는 28세의 젊은 나이에 실직자로 있다 우연한 기회에 평생 죽기 전에 해 봐야 할 것 100가지를 기록하는 'The Magic of Thinking Big'에 하고 싶은 것 107가지를 기록했고 2004년 2월까지 교황,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면담하기 등 기록한 103가지를 달성했다.

영화배우 짐케리는 햄버거 하나로 끼니를 해결하고 차에서 잠을 자며 젊은 시절을 보내다 문득 알게된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할리우드 간판이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랐고 할리우드 간판을 내려다보며 훌륭한 배우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에게 천만불을 지급기로 하고 5년 후의 날짜로 수표를 썼고 그후 영화 배트맨, 탐앤타머 등에 출연해 거액의 출연료를 받아 발행한 수표를 부도내지 않을 수 있었다.

스콧 아담스, 짐케리, 데이비드 J 스왈츠 등 젊은 시절 모두 평범했던 이들이 성공해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목표를 정하고 이를 때까지 도전한 탓이다.

비전스쿨 강현구 교수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거나 스콧 아

담스, 짐케리, 데이비드 J 스왈츠와 같이 꿈을 이루고 싶은 이들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글로 쓰라'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9일 오후 2시 나성영락교회(담임 립형천 목사)에서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부모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교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만의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작성하게 하고 꿈과 성공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화되는 자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강교수비전스쿨을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강 교수는 세미나에서 "어떤 종류의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 정도 자라지만 연못에 넣어두면 50cm 정도 자란다. 하지만 강에 넣어두면 1m 이상 자라난다. 사람을 어항, 연못, 강에 비유한다면 꿈을 가진 사람은 어항 크기의 사람이고 꿈과 데드라인을 가진 사람은 연못 크기의 사람이다. 그리고 꿈, 데드라인 그리고 또 하나를 가진 사람은 강 크기의 사람이다"며 "강 크기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글로 쓴 구체적인 비전'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교수는 A4 한 장 분량을 채워 방향 중 계획을 자세히 기술한 학생과 1/4만 채운 학생의 계획서를 보여주며 "구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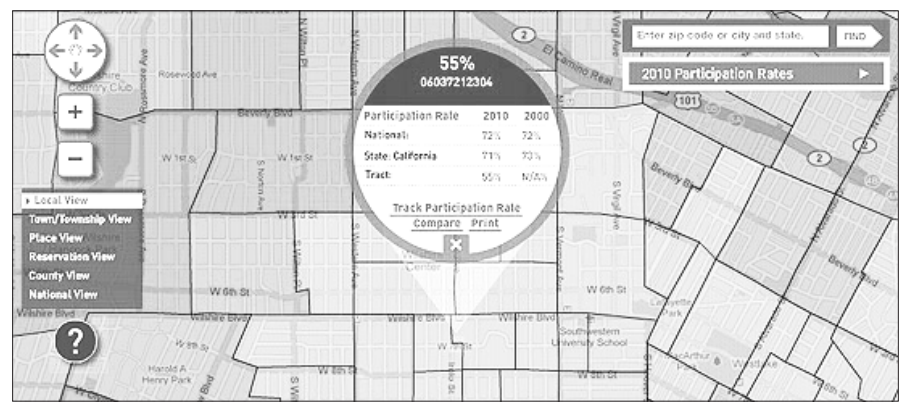
로 계획을 가진 학생은 구체적인 계획대로 노력하며 좋은 결과물을 얻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는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막연한 비전과 목표는 막연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며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 자신의 목표가 언제 달성될지 모르는 사람, 문장으로 작성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실패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선 비전을 구체적으로 써야 하며 비전 있는 자들과 접촉해 꿈을 잉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 교수는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쓴 한 고등학생의 글을 보여주며 "매일 이 글을 쓰며 공부한 학생은 처음엔 전교에서 자신 보다 낮은 점수의 학생이 손가락을 꼽을 정도였지만 11년의 모의고사 후엔 자신 보다 높은 점수의 학생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가 됐다"며 비전을 구체적으로 글로 쓰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끝으로 강 교수는 10년 전 자신이 쓴 비전스쿨 지부 설립 계획 등의 비전의 글을 보여주며 "날짜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거의 같다. 리더 양성을 위한 비전스쿨을 계속해서 설립 될 것이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써보시길 바란다"고 권했다.

한편 강 교수는 지난 10일 오후 7시 제이제이 그랜드 호텔에서 '가슴 뛰는 삶'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11일부터 13일까지 오후 6시 30분 부터 LA한국교육원 에서 'My Life, My Vision' 주제로 특강을 했다. 또 17일 오전 10시 30분 4160 윌셔 블러드 에서 위치한 사무실에서 '엄마라는 이름의 위대한 경영자, Mom CEO'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문의: 323-954-7700 (이태근 기자)



미 전역 센서스 참여율이 LA 한인타운은 55%로 미 전역 참여율 72%에 비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서스국

미 전역 센서스 참여율 72%, LA 한인타운 55%

센서스 가정 방문조사 7월 10일까지 계속돼

미 전역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율이 5월 5일 현재 72%를 기록하고 있다. 10년 전인 2000년에도 72%로 이전 기록과 같은 수치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현재 71%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2000년 기록해 올해 센서스 참여율이 2%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한인타운의 경우, 참여율이 55%로 나타났다. 이는 미 전역 참여율 72%에 비해 약 20% 정도 저조한 것이다.

미 연방 센서스국 LA지역 한인담당 제니 주 홍보관은 "센서스국에서 100% 인구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한인들 중에는 센서스 인구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거나 신분 노출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센서스 조사를 전혀 하지 않으려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센서스국은 지난 5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약 63만 5천여 명의 센서스 조사원들이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이는 센서스 질문지를 받지 못했거나 우편 회신이 되지 않은 약 4,800만 가구들이 모두 다 센서스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센서스 가정 방문 조사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 최대 6차례까지 방문하며 오는 7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제니 주 홍보관은 "센서스 10가지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는다"며 "앞으로 10년간 개인뿐 아니라 미주 한인 커뮤니티를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아직 인구조사를 하지 못한

이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가정에 센서스 요원이 방문할 시 센서스 조사요원은 절대 집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소셜 시큐리티 넘버 혹은 크리드 카드 정보, 운전 면허증 등 개인 신분과 관계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니 주 홍보관은 "센서스 조사요원이 가정을 방문할 시 의식이 같 경우 반드시 검은색 센서스 가방과 신분 배지를 확인하고 담당 지역 슈퍼바이저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하라"고 말했다. 또한 주 홍보관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는 센서스 안내 한국어 핫라인 1-866-955-2010으로 즉시 전화하라"고 덧붙였다.

(지재일 기자)

울타리선교회, 성전 이전 감사 예배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 15일 오전 10시 30분 ◇

울타리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린다.

엘에이 지역 흠리스들을 위해 급식을 나누며 예배를 드려온 울타리선교회는 몰려드는

교인들을 감당치 못해 성전을 이전하게 됐고 4월 첫째주 교회의 당회로 부터 성전 사용을 허락 받았다.

울타리선교회가 성전으로 사용할 곳은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3개의 건물 중 한 곳이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는 104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로 미주한인의 이민사와 함께 하는 역사 깊은 교회다.

나주옥 목사는 "흑인 흠리스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교회관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다. 더욱이 4-29 흑인 폭동으로 인해 흑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있을 한인들이 교회사용을 허락한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이런 감사의 때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문의 : (323) 373-0557 / (213) 819-3300 장소 : 1374 W. Jefferson Bl. LA, CA 90007

(이태근 기자)

축구국가대표팀 공식 한방병원 - JASENG CENTER
자성한방병원 풀러튼분원

축구국가대표팀 공식 한방병원

박지성 선수와 함께하는 척추건강 123캠페인
'자성한방병원 풀러튼 분원'에서

청소년 자세교정 및 성장·비만 무료상담 받으세요!

자성한방병원 풀러튼 분원

-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대한민국유일의 척추전문한방병원
- 한국 자성한방병원 의료원장 역임 의료진 상주
- 한국 자성한방병원 척추관절치료와 동일한 시스템
- 한·양방재활의학전문의 등10명의 의료진에 의한 365일 양한방통합치료

한양방 통합치료 센터

척추관절센터: 허리디스크, 목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수술후유증, 오십견, 퇴행성관절염
특수클리닉: 턱관절장애, 청소년 측만 및 성장, 골프척추관절클리닉
웰빙센터: 비만, 불임, 산전산후관리, 여성질환, 만성피로, 보약원
양방검진센터: 디지털 X-ray, PACS, EMG/NCV, 체지방검사

24시간 전화예약 및 상담 **714-773-7000**

여행자 보험 및 각종보험 취급 - 직장상해 및 교통사고 전문
www.jaseng.co.kr/www.jasengusa.com
1950 Sunnycrest Drive Ste 2000 Fullerton, CA 92835



(왼쪽부터) LA 장로중창단 정도영 장로, 김가일 장로, 단장 정진식 장로, 증경 단장 이종문 장로.

농어촌미자립교회 돕기 위한 LA 장로중창단 찬양의 밤

LA 장로중창단(지도 윤임상 교수, 반주 서문민혜)이 오는 5월 15일(토) 오후 7시 30분 찬양교회에서 한국 농어촌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찬양의 밤을 마련한다. 이번 연주는 한국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경배와 찬양', '고백과 회개', '간구와 소원', '감사와 찬송'을 주제로 한 선교 찬양 연주회로 마련된다. 중창단은 이번 연주회에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거룩 거룩, 주 사랑해, 평화의 노래 등 주옥같은 은혜의 성가곡을 선보인다.

"선교와 감사와 찬송 등 다양한 주제아래 준비한 성가곡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우리의 입술을 통한 찬양이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섬세하게 이번 연주회를 준비했으니 많은 성도들이 함께 와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A 장로중창단은 남가주장로 성가단에 소속된 12명의 장로들이 찬양을 통한 세계 선교를 목적으로 조직됐다. 지난 2004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 기독교 군인 선교대회 초청 찬양, 2005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 원주민을 위한 위로와 선교 찬양,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 선교 찬양, 2006년 한국 낙도지역 선교 찬양, 2008년 미국 동부 지역 순회 찬양, 2009년 콜로라도에서 개최된 세계 기독교인대회 초청 찬양 등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쳐왔다.

찬양의 밤을 위해 세계비전교회 담임 김재연 목사가 설교를 전하며, 복음장로교회 담임 김상덕 목사가 연주 후 축도를 할 예정이다. 또한 소프라노 김영안, 테너 강성근이 찬조 출연해 기도(The Prayer)를 연주한다.

LA 장로중창단 김가일 장로는 "한국 섬마을에는 교통이 불편해 아파도 치료할 약이 부족하다"며 "미자립교회 목회자가 어려운 상황을 모두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번에 장로중창단에서 미자립교회들을 지원하자는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LA 장로중창단은 이번 찬양의 밤을 마친 후 오는 18일 한국으로 입국해 연주회를 가지며 모금된 헌금을 미자립교회에 전달한다. 또한 명성교회를 포함한 5개 교회에서 찬양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LA 장로중창단 정도영 장로는

(지재일 기자)

고현종 목사 "받은 은혜로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

디사이플교회,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적 비전 품어

최근 탄생 1주년을 맞이한 젊은 교회가 있다. 젊은이가 있어 젊은 교회가 아니요,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새포도주와 같이 젊은 교회이다.

다름 아닌 얼바인에 위치한 디사이플교회(담임 고현종 목사). 고 목사는 "제자훈련으로 은혜 받아서 열심히 선교하는 것" 그 뿐이라고 한다. 아래는 고현종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

- 교회 소개와 더불어 1주년 맞이한 소감은

작년 1월 지인 30여명과 함께 공원에서 기도모임부터 시작했다. 5월 3일 탄생감사예배를 드렸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 공동체'라는 슬로건 아래, 제자훈련 잘해서 받은 은혜로 열심히 선교하고자 하는 선교 지향적 교회이다.

지난 1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내실이 다져지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또한 새로운 사역에 대한 리드가 끊임없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긴장도 된다.

-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10년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3년 부교역자로 섬겼다. 어떻게 개척하게 되었나?

개척에 대한 생각은 늘 가

지고 있었지만 결코 어떤 지원과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큰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지원을 받으며 개척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시작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린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개척한다는 소문을 듣고 부교역자로 사역할 당시 인연이 있었던 제자들이 먼저 찾아와 주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 1년 만에 큰 성장을 이룬 비결은 무엇인가?

준비된 일꾼들을 많이 붙여 주셨다. 1년 동안 사역적인 면에서 틀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의 역할이 컸다. 새로운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니 그 안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또 다른 일꾼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영적으로 갈급한 고단한 이민자들은 은혜에 대한 민감함이 남다르다. 때문에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몸부림이 있다. 이들이 예배를 통해 말씀과 은혜가 회복되니 자연스럽게 선교에 대한 비전이 공유되었다.

-교회 탄생예배 후 단 두 달 만에 단기선교를 보냈다. 가능한가?

한국 이민자들은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라,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비전위에 교회가 세워 졌다. 교회가 틀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선교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 비전이 성도들과 공유되어지니 무리가 되었지만 단기선교도 보낼 수 있었다.

오는 7월에도 파라과이, 브라질의 아마존, 터키 등으로 총 55명의 단기 선교팀을 파송할 예정이다. 청장년층부터 학생,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 다양하다.

- 지난 1년 동안 힘들었던 점은?

개척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사역이나 그 밖의 관계성의 문제는 없었다. 오히려 사역이 많아 벅찼고 그 짐이 무거웠다는 것 정도이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칠 때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데 개척부터 현재까지 쉴 수도, 쉬어서도 안 되었다.

- 부교역자 시절부터 1주년 감사부흥회까지 오정현 목사님과 인연을 소개하면?

1995년도 안식년을 맞아 브라질에 오신 오정현 목사님을 처음 만났다. 브라질 이민 1.5세대로 당시 대학교 4학년인 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사명으로 불타있었다. 다리 밑에서 구제와 사역을 함께하



고현종 목사

는 걸인교회를 세우고 사역하고 있었다. 교회가 점점 커지고 사역이 알려지다 보니 브라질에 오시는 목사님들은 꼭 그 교회를 방문하셨다. 그 중에 한 분이 오 목사님이었고 설교 통역을 도와드렸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적인 멘토로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 목회철학과 아울러 교회의 비전은?

행복한 목회다. 그러자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교회의 평가는 '얼마나 낫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이다.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은혜 되지 않는다.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얼마나 변화되어 성장하고 있는지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이민자에게는 '내가 왜 이 민생활을 하는가?'라는 정체성의 인식이 중요하다. 이 자리에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사명이 들어가면 불이 붙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박상미 기자)

"오늘은 교회에서 효도하는 날입니다"

5월 9일 '어머니의 날'을 맞아 하늘샘교회(담임 김형구 목사)는 교회 성도들을 위한 무료한방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무료진료는 우수한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경산한의원병원 류재규 원장(미주한의학협회 부회장이) 봉사했다.

김형구 목사는 "오늘은 교회에서 효도하는 날"이라며 "진료를 받고 효과를 본 성도들이 많아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진료에서 기적을 체험했다는 차성주 집사는 "스키장 사고로 1년 반 동안 오른팔을 사용하지 못했다"

며 "단 두개의 침으로 오른팔이 통증 없이 번쩍 들리는 일은 미라클(miracle)"이라고 거듭 말하며 놀라워했다.

또한 침을 처음 맞아 보았다는 신영철 장로는 "발이 아팠는데 침을 맞고 신기할 정도로 통증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재호 장로는 "이렇게 진료를 받


게 돼 너무 고맙다"며 "교회와 류재규 박사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크고 작게 진료 효과를 본 성도들은 "교회가 큰 효도를 해 준 날"이라며 거듭 감사했다.

▶ 경산한의과병원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Tel: 213-380-0835
(박상미 기자)



류재규 원장(경산한의과병원)이 침 시술을 했다.



HAPPYDAY CONFERENCE 2010

제1차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미주 컨퍼런스

폭발적인 부흥의 결과를 가져오는 8주간의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은 한국에서 2,300개 교회의 적용을 통해 **평균 40% 이상의 출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 불신자 전도를 위한 제1차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 미주 지역과 캐나다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 500명을 선착순으로 등록 받습니다.

※ 2009년 가을 해피데이 전도를 통한 새신자 등록 현황

교회(담임목사)	출석교인	해피데이 새신자 등록	교회(담임목사)	출석교인	해피데이 새신자 등록	교회(담임목사)	출석교인	해피데이 새신자 등록
순천성광교회(김동운목사)	1100명	600명	대구원대교회(김우혁목사)	330명	130명	하나인교회(이태영목사)	450명	200명
제자들교회(김경희목사)	120명	85명	대구선교교회(정성은목사)	50명	133명	산정현교회(김형권목사)	200명	100명
부천별빛교회(오정호목사)	50명	52명	예향침례교회(이기영목사)	140명	79명	주님의교회(전영미목사)	18명	29명
부평교회(최원국목사)	200명	115명	부천빛교회(오길용목사)	100명	80명	순복음열방교회(최동열목사)	50명	70명

더 늦기 전에 해피데이 전도를 준비하십시오.
해피데이 전도는 불신자 전도와 교회 부흥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서두르세요!

강사: 김한욱 목사(새안양교회 담임,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대표,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일시: 2010년 6월7일(월) 오후1시-9일(수) 오후5시까지
 장소: 나성한인교회(담임 김영진 목사, 교회주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대상: 담임목사 및 성도(1교회 2명 이상, 담임 목회자는 필히 참석)
 등록: 1인 \$250(4월15일까지), 1인 \$270(4월16일~5월5일까지), 1인 \$300(5월6일부터)
 교재, 중식 및 간식제공, 숙박 별도

환불규정: 5일전까지 10% 차감, 하루 전까지 20% 차감, 당일부터 30% 행정수수료 차감
 등록방법: **둘로스교회 홈페이지(www.douloschurch.com)** 게시판에 신청 후 체크를 보내고 전화 주세요.
 Pay to the order of : Doulos Community Church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문의: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미주 컨퍼런스 담당자 둘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전화 310. 951. 3153 팩스 310. 214. 1150 이메일 jsbc@hanmail.net
 ※ 선착순 등록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 황제의 성공인가 예수의 성공인가”

이어령 박사와 이재철 목사, 이번엔 ‘교육’ 주제로 대담

교육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이들이 교육을 연구하고 교육에 열을 올리지만 아직도 우리 교육은 갈 바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양화진문화원 2010 목요강좌에서 ‘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어령 박사(이화여대 석좌교수, 양화진문화원 명예원장)와 이재철 목사(100주년기념교회)의 대담에 참석한 이들은 절박하고 갈급해 보였다.

이어령 박사 “우리 교육은 달라지고 있지 않는데 준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첫 질문을 받은 이어령 박사는 “오늘 교회 와서 얘기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명쾌한 해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어령 박사가 제시한 성구는 다소 뜻밖의 것이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9-10절의 “너희 중

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말씀이었다.

이 박사는 “이 말씀은 교육의 핵심을 찌른 말씀이다. 달라고 하는 게 먼저고 주는 게 나중”이라며 “그런데 우리 교육은 달라고 하지 않는데 준다. 생선을 달라는 아이에게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 아이에게 돌을 주는 그런 교육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어령 박사는 ‘교육’이란 ‘가르치는(Teaching)’ 것 보다는 ‘배우는(Learning)’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우는 게 뭐냐 하면 (교육 문제가) 풀리는데 ‘가르치는 게 뭐냐고 자꾸 하나씩 교육 하면 학교가 학원이 먼저 떠오르고 제도가 떠오른다”며 “지금까지의 교육은 가르치는 것을 뭉는데 성경에서는 달라는 쪽에 포커스를

뒀다. 교육이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배우는’ 것만 강조하면 되는가. 이어령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배우는 이들이 원하대로만 하게 되면 균형 잡힌 교육이 불가능하고 혼란이 오기에 ‘가르치는(Teaching)’ 것 역시 중요하다. 이어령 박사는 여기에 더해 ‘생각(Thinking)’과 ‘창조(Creation)’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조를 해야 한다. 창조 못하면 우리 죽는다”면서 “그런데 자꾸 남의 생각만 집어넣으려 하니 스티브 잡스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철 목사 “서울대 나오면 성공? 크리스천이라면...”

이재철 박사는 흔히 자녀 교육의 모델로 거론되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맹자의 어머니가 공동묘지 옆에서 시장으로, 그리고 서당 옆으로 이사를 해서 맹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키웠다고 하는데, 정말 현명한 어머니였다면 처



양화진문화원에서 개최한 ‘지성과 영성의 만남’ 대담. 사회자인 김종찬 박사(전 KBS집중토론 사회), 이어령 박사, 이재철 목사(좌측부터 순서대로)가 교육 문제를 논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음부터 공동묘지 옆에 살지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맹자의 어머니가 일부러 공동묘지 옆에서 죽음을 가르치고, 시장 옆에서 생존의 현장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무엇을 왜 배워야 하는지 알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기존 해석 논리를 따른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을 줄까가 중요해지는데, 본질적으로 보면 왜 교육받아야 하는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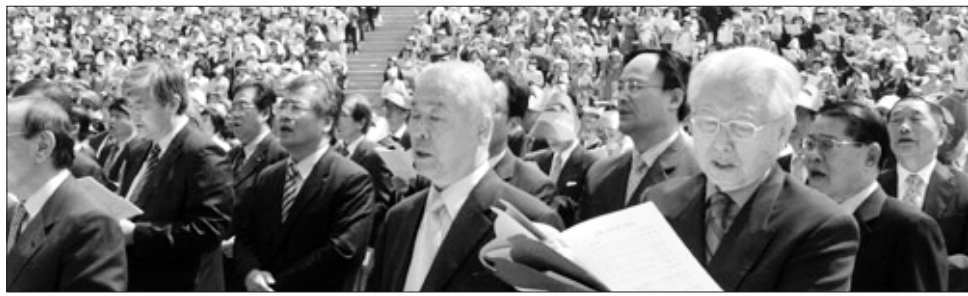
중요해진다”며 “무릇 그리스도인 학부모라면 내 자식에게 왜 공부하게 하겠는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철 박사는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때 황제의 길에서 성공인가 예수의 길에서 성공인가, 이 부분이 늘 명확해야 한다”며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참된 교육의 목적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면, 서울대를 나온다고 해서

그 삶이 정말 행복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철 박사는 결론으로 “그리스도인 부모들만이 입시제도에서 탈피할 수 있다”며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주신 독창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면, 똑같은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자식들을 밝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재광 기자〉



8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감사와 찬양의 축제’에서 5천여명의 성도들이 극장을 가득 메웠다. ©이대웅 기자

125주년 맞은 연세대, “기독교 선교의 축복”

김한중 총장 “따뜻한 엘리트’ 양성, 하나님 함께하는 대학”

한국 선교 125년의 역사와 함께한 연세대학교(총장 김한중 박사) 125주년 기념식이 8일 오전 서울 연희동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개최됐다.

박정세 교목실장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는 기도예 영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성경봉독에 황해국 목사(일산세광교회) 등 연세대 출신 목회자들이 주로 순서를 맡았다. 합심기도에서는 이정

익 목사(신촌성결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소화춘 목사(중주제일교회)가 연세를 위해, 윤호균 목사(화광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세(사 43:1-7)’를 제목으로 연세대 출신이 아닌 김삼환 목사(명성교회)가 맡았으며, 이후 김한중 총장이 기념사했다. 김한중 총장은 “연세대학교는 125년간 한국

교회와 함께해 왔다”며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선교의 축복”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연세대학교는 국민들과 함께 근대화와 국학 연구, 민족?독립 정신을 키워왔다”며 “이제는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따뜻한 엘리트를 키워내는 대학,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대학으로 새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고 역설했다.

〈이대웅 기자〉

루이스 부시 “4/14 일어나면 세상 달라질 것”

4/14 윈도우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4/14 윈도우 글로벌 컨퍼런스’ 첫날 기조연설을 맡은 루이스 부시 목사는 “하나님은 4세부터 14세까지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세우기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신다”며 “여러분도 4/14 세대에 대한 영적인 불을 받아 주위 사람들에게 그 불을 전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1995년 10/40 윈도우 개념을 소개해 미전도종족 복음화에 기여한 루이스 부시 목사는 지난해 세계변혁운동의 일환으로 4/14 윈도우 운동을 출범시켰다. 그는 이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젊은 세대를 필요로 하셨고, 어릴 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 무엘은 영적 민감성을 늘 갖고 살

았으며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 찬양한 이들도 아이들이었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아이들이 세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신다”며 “여러분도 4/14 세대에 대한 영적인 불을 받아 주위 사람들에게 그 불을 전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오늘날 어린이, 청소년들이 신앙에서 자주 멀어지고 세속적인 인터넷 커뮤니티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교회와 성도가 하루속히 아이들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아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유럽, 북미 등 서구에서 기독교가 침체되고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비

서구에서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기독교의 얼굴이 바뀌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4/14 운동이 더욱 절실하다”며 “서구에서는 주일학교를 다시 부흥시켜야 하며 극심한 노동과 정서적 학대, 성적 노리개 등으로 통 받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4/14 세대들은 기독교 중심적 세계관으로 교육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이스 부시 목사에게 어린이, 청소년 사역의 비전을 심어주었고 4/14 운동의 산파역을 맡았던 뉴욕프라이스교회 김남수 목사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거대한 4/14 운동을 일으키는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WMA 대표회장 강승삼 목사도 “4/14 세대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희망이며 미래”라고 축사했다.

〈이지희 기자〉

주택 차압/퇴거 중단

- 페이먼트를 못 내고 있어서 불안하신 분
- 은행에서 Notice of Default, Foreclosure Intention, Trustee Sale 통보 받은 분
- 융자 조정(Loan Modification), 숏 세일(Short Sale) 진전이 없어 불안하신 분
- 이미 융자 조정, 숏 세일 시도했으나 실패해서 차압이 임박한 분
- 숏 세일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다시 집을 지키기로 결정하신 분
- Foreclosure(차압)이 끝나고 Eviction(퇴거 명령)을 기다리고 계신 분
- 세컨 홈, 4 Unit, APT, 상업용 건물, 교회...
- Rent로 살던 집이 숏세일이나 은행에 차압(Foreclosure)이 되어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할 분

융자 조정(후불, 미주 전역)

즉각 차압 중단
즉각 퇴거 중단

- 현재 페이먼트를 잘 내고 있으나, 크레딧 손상 없이 페이먼트를 낮추고 싶은 분
- 변동 이자 페이먼트(Option Arm)를 내고 있어서 원금이 늘어나 불안한 분, 30년 고정 프로그램으로 재융자 하고 싶으신 분(NO Tax, Bad Credit OK)
- Obama 법에 의해, 융자 원금 삭감 가능 (예: 2차 론의 경우, 18만불에서 2만불만 내고 16만불 탕감 받음, 사무실 방문시 모든 성공사례들을 직접 확인시켜 드립니다)

NO...NO Short Sale : 저희는 절대로 숏 세일을 권유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켜드리는 데만 목적을 두고 일합니다.

WP Lending Inc Paul Lee (폴리)
3400 W. 6th st., #200, LA, CA 90020
(6가와 카탈리나, MBC 건물) **213-248-9297**

365일 매일 3회 집회가 있는 L.A 대한민국 기도원

꿈이 이루어지는 기도원,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불같은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신유의 은사로 각종 암병, 중풍, 우울증, 신경통, 당뇨가 치료되며 사명자들은 사명이 회복되고 은사가 회복됩니다 자녀, 가정, 사업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시간 : 새벽 5시 30분 / 오전 11시, 저녁 7시

예배장소 : 2716 Ellendale Pl., LA, 90007

* 차량픽업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323-734-4599 / 213-725-3007

* 각 분야 봉사자 및 악기 연주자, 사명자들은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 구인모집 ◆◇◆◆

학교 행정업무 보실수 있는 '이중언어' 사용자 및 컴퓨터 능한자 (40세 미만 환영합니다)



한국교회에 '영화설교'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하정완 목사(꿈이있는교회)는 정확히 11년 전, 하나의 실험을 단행한다. 거룩한 예배시간, 성가대의 찬송이 흐르고 엄숙한 기도가 있다. 어느 예배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잠시 뒤 이어진 설교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흐른다. 영화였다. 하정완 목사의 '영화설교'는 이제 한국교회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영화설교는 그야말로 특별한 케이스일 뿐, 여전히 설교는 높은 강단 위에서 거룩한 가운을 걸친 목사가 차분하게, 때론 열정적으로 회중을 향해 '선포'하는 형식이 주를 이룬다. 이를 전형적인 '구연(口演)설교'라 한다면 하 목사의 영화설교는 '특수설교'라 할 수 있다. 한국설교학회가 8일 오전 안양시 성결대학교에서 '구연설교를 넘어 특수설교로'를 주제로 제11차 정기학술대회를 가졌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특수설교에 관심을 기울이지는 취지였다.

정인교 교수(서울신학대학교)가 주 발제자로 나서 '특수설교는 가능한가?-새로운 설교방법론에 대한 설교학적 고찰'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일단 전통적 설교방법인 구연설교의 흔들리지 않는 중요성을 강조한 뒤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정체 및 쇠퇴 중인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특수설교가 하나의 해답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구연설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가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한 구연설교의 위치와 기능은 확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뉴미디어의 출현"이 한국교회에 특수설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특수설교 필요한 이유... 정보통신 발달, 교회 쇠퇴

그는 "오늘의 세계는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고 그 변화의 동력은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며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은 세계 전반에 이르러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왔고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 교수는 "이러한 변화는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감지된다"며 "기술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논리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 기능이 강해진다. 그들은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자신이



일방성의 전통적 구연설교만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교회가 발맞추기 어렵게 됐다. 쌍방성의 다양한 특수설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은 모두 불확실한 것으로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분석은 지금까지 강단이 추구해온 '선포'의 일방성이 더 이상 수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며 "전통적인 설교가 보였던 '신적 권위'에 기저한 일방적 선포는 신앙적으로 준비가 된 극소수 외에는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설교의 전달 기법이 회중과 설교자의 연대성으로 구체화될 경우에만 회중들이 그 설교를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 교수는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 기독교의 대사회적 이미지 실추, 한국교회 설교의 특

성 등에서 특수설교의 가능성을 엿봤다.

그는 "한국교회 위기상황과 대사회적 이미지의 실추는 특수설교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든다"며 "위기의 주범으로 설교가 거론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흥수처럼 넘쳐나는 설교임에도 그것이 과연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고 했다.

정 교수는 또 "다양한 행사와 각종 프로그램에서 설교는 빠지지 않지만 그것 하나하나가 전혀 새롭지 않다"며 "설교는 항상 일반 예배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특히 절기 설

교의 경우 절기가 가진 기본적인 성격이 회중에게 노출돼 있어 배가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대부분이 뻔한 설교, 식상한 설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설교가 하나의 보완적 영역으로 인정받길"

정 교수에 따르면 구연설교를 보완할 특수설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설교의 입체화-전통적 설교가 성경의 주석적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특수설교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양한 도구와 자료

들을 동원해 묘사하는 데 더 많은 비중을 둔다. ▲다양한 장르와의 연합-특수설교는 간단한 도구에서부터 영상과 인간 그리고 음악이나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장르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에 한계가 없다. ▲회중이 설교진행에 동참할 기회의 보장-설교자 홀로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 회중들이 동참하게 된다. ▲귀납적 구조-일방적 교훈의 전달을 지양한다. ▲움직임(doing)의 추구-설교자가 단순히 말만이 아닌 몸을 이용해 설교하며 회중들 역시 이 움직임에 동참한다.

정 교수는 "구연설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 설교의 철칙이다. 이런 점에서 특수설교는 별종이자 비주류이며 자칫 이단일 수도 있다"며 "특수설교의 기저에 흐르는 것은 충정이다. 주류인 구연설교를 도와 강단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 밑바닥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관습적 익숙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 생명력까지 사장시킬 수 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제거와 보완이라는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특수설교가 하나의 보완적 영역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무슬림, 두려움이나 적대감 아닌 사랑으로 바라봐야"

이슬람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무슬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으며, 이 사랑이야말로 어렵다고 하는 무슬림 선교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고 한 여성 선교학자가 강조했다.

6일 서울교회에서 열린 한국로잔위원회(의장 이종윤 목사) 5월 월례모임에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학과 이동주 교수(비교종교학)는 '신앙이 다른 분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기'란 주제 아래 무슬림 선교에 대해 이같은 고찰을 제공했다.

이동주 교수는 "많은 이들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슬림 선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

작하면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됐다"고 화두를 꺼내고, 최근 말레이시아 선교 현장을 방문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현지 여성 선교사에게 선교 방법을 묻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

한국로잔위 월례모임서 아신대 이동주 교수 발표

저 기독교 공동체로 선교 대상을 초대해 사랑의 교제를 충분히 나눈다고 답했다. 이런 방법으로 이 선교사는 한 해 평균적으로 6명에게 개종 세례를 베풀고 있다.

이 교수는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선교를 가능케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랑은 자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다. 따라서 선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아가페를 이웃에 베풀 수 있도록 하는 성령과

의 동역 없이는 불완전하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선교의 실패는 흔히 진실한 아가페의 부재에서 일어난다"고 언급했다.

무슬림 선교도 마찬가지다. 아가페적 사랑 없이는 무슬림을 전도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특히 최

근들어 한국에도 많은 무슬림들이 유입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한 키르기스스탄 선교사의 말을 인용, "한국에 들어온 무슬림들은 나그네이므로 무슬림들에게 철저히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선교사는 무조건적인 이슬람포비아를 경계하며, 이는 오히려 "한국 내에 이슬람 공동체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무슬림들에 대한 두려움이 선교의 기회조차 박탈한다면, 무슬림들에 대한

사랑은 이들의 마음을 열어 결국에는 기독교의 진리로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한편, 무슬림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되, 이슬람과 무슬림을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한국 내 이슬람의 팽창을 간과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 또한 이 교수는 분명히 했다.

또한 이 교수는 "사랑 없이도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역은 타락의 위험이 있다"며 "우리와 신앙이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사역자의 모습은 정복이 아니라 사랑의 헌신의 모습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현정 기자)



대홍장로교회

교회창립 33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예배에 초대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보살핌으로 저희 대홍장로교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의 기쁨이요 감사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창립 33주년 감사예배와 더불어 아래와 같이 장로장립, 집사안수 및 권사취임예배를 갖고자 합니다. 뜻 깊은 이 자리에 귀하를 정중히 초대하오니 부디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시며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명단

장로장립: 유태종 서성도 송갑수
 안수집사: 명순식 안동수 원성호 이승재 이신희 주지명 홍경화
 권사취임: 김문자 김종실 박윤자 박정희 장주영 정인숙 홍화숙



일시: 2010년 5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장소: 대홍장로교회 본당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el. 310-719-2244

<http://www.dkpc.org>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USA

654 N.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4

합동추진 공동위원장: 이희태 목사 (646) 404-1924, 홍명철 목사 (646) 645-0691
 위원: 신상원 목사 (213) 500-1468, 배인치 목사 (213) 321-4045, 서보전 목사 (310) 951-3153

합동 총회 소집공고

금번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총회 (합동) (총회장:이희태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미주총회 (총회장:홍명철 목사)는 각 총회의 합동추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양 총회의 합동을 위한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각 총회 산하 노회는 노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가칭) 합동 총회

주제 :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엡6:11)

1. 일시: 주후 2010년 5월 25일(화) 오전10:00-5월 26일(수) 오후5:00
2. 장소: 사랑한인교회(하계식 목사 시무)
2801 W. Temple St., Los Angeles, CA 90036 (213) 380-0085
3. 설교: 서정배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형제의 연합' 시편 133:1-3
4. 연락사항
1) 각 노회는 현의안 및 각 노회 임원조직 및 노회현황을 각 총회 서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총회는 정기총회 부담금을 합동추진위원회의 회계(배인치 목사)에게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타주에서 오시는 총대를 위하여 숙소가 예약되어 있으니 숙소가 필요하신 총대께서는 신상원 목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총회(합동)

총회장 : 이희태 목사
서 기 : 신상원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미주총회

총회장 : 홍명철 목사
서 기 : 최기성 목사



한미평화 조찬기도회 열려

■ The Bible Expo 2010 설명회도 진행 ■

지난 5월 8일(토) 오전 7시 워싱턴 D.C. Hyatt Regency Hotel에서 한미평화 조찬기도회와 The Bible Expo 2010 설명회가 개최됐다. 한미평화 조찬기도회는 정세권 장로(한미국가조찬기도회-워싱턴DC헬로십 회장, 미주한인재단 전국 총회장)의 사회로, 김성도 목사(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의 대표기도, 박상근 장로(워싱턴지역 기독교실업인회 회장)의 성경봉독, 강신권 목사(코헨신학대학교 총장)의 설교, 정시우 목사(PCUSA 증경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으며, 새찬양 꿈나무들의 특별연주가 있었다.

강신권 목사는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본문으로 “바움 하제(바로 이 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강 목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움 하제(바로 이 날에)’는 부족공동체에 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의 국가공동체로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을 그린 것이다.”며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 이르기 전 40년 동안 광야의 기간을 거쳤다. 쓴 물이 단 물로 변한 마라의 기적을 통해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엘림을 통해 풍족할 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으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말렉이 이기던 르비딤 전투에서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 이 3가지 영적 전투 후에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 이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강 목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인들을 부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의 무대에 세운 바로 그 날, 시내산 앞에 이른 바로 그 날을 생각하며,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어진 The Bible Expo 2010 설명회는 박상원 회장(미주한인재단 전국부회장)의 사회로, 김영진 장로(국회의원, The Bible

Expo 2010 조직위원장의 환영사, 남문기 회장(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의 축사, 강신권 목사(The Bible Expo 2010 국제제자문위원장)의 경과보고, 김명균 장로(미주한인회총연합회 사무총장, 크리스천헤럴드 발행인, The Bible Expo 2010 국제조직위원장)의 광고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진 장로는 “다른 일이라면 거절했을텐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경 엑스포’이기 때문에 한기총 대표회장인 이광선 목사님이 대회장으로, 제자조직위원장으로 섬기게 됐다”며 “종교를 초월한 사랑과 화합의 축제가 마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조직위원장인 김명균 장로는 “미주에서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고문으로 남문기 회장, 준비위원으로 정세권 회장과 박상원 회장이 참여하고 있다. 미주 각 지역에서 관심있는 분들은 준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The Bible Expo 2010 문의 : 213-353-0777(크리스천 헤럴드)

〈 The Bible Expo 2010란? 〉

‘생명의 빛, 사랑의 빛, 희망의 빛’을 주제로 한 더 바이블 엑스포는 “세계 최고의 기독교화에

술을 창조하고 이를 널리 알려 생명과 사랑, 그리고 희망의 빛을 전하자”는 취지로 준비되고 있으며 7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인천 송도센트럴파크(100,000m)에서 열린다.

성경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널리 알려지고 오래도록 읽힌 책이다. 더 바이블 엑스포는 바로 그 성경 속에서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콘텐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이기도 하며, 한국교회 초대신앙의 순교정신이 깃든 첫 사랑을 되새기며 본받자는 의미를 담았다.

오감(五感) 총동원해 하나님 사랑 느낄 수 있도록 기획

엑스포는 크게 구약존, 신약존, 바이블랜드, 바이블월드, 바이블플라자, 바이블엔터테인먼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더 바이블 엑스포는 인간의 오감(五感)을 총동원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빛’을 주제로 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소재와 효과를 통해 찬란의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먼저 구약존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스라엘의 출애굽 등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감할 수 있게 기획된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은 실제 크기로 제작될 ‘노아의 방주’. 무려 길이 135m, 폭 22m, 높이 12m로 짓는다. 이뿐 아니라 바벨탑과 솔로몬의 성전 등을 모두 철제한 고증을 거쳐 가장 사실과 가깝게 재현한다.

그 다음 신약관에서는 갖가지 인물로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바이블랜드에서는 성경 속의 문화를, 바이블월드에서는 성경의 제작 과정과 역사를, 바이블플라자에서는 음식과 문화 등 성경을 토대로 한 다양한 축제를, 바이블엔터테인먼트에서는 러시아 볼쇼이 서커스단을 비롯한 공연과 이벤트를 체험케 할 계획이다.

모든 조형물과 콘텐츠는 행사가 시작되는 7월 16일 이전까지 준비되는 반면, 예루살렘의 모습을 조형물로 제작하는 ‘리틀 예

루살렘’의 경우 전시장 내에 공간을 마련해 제작과정을 감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약 3개월여에 걸친 제작과정을 직접 감상할 수 있게 해 흥미를 돋운다는 취지.

‘사실과 가깝게’보다 ‘성경의 메시지 전달’에 더 주력

조직위측은 “얼마나 사실과 가깝게 제작하느냐”보다 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얼마나 성경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느냐”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에텐동산의 경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서로 사랑하면 에텐동산과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노아의 방주의 경우 의인 노아가 심판당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느꼈을 비통한 심정

을, 바벨탑의 경우 우리 일상 속에도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있다는 경고를 담는다.

엑스포는 세계인이 공감하는 한국의 글로벌 관광문화 축제를 개발하고, 오페라의 유령이나 캣츠 등을 뛰어넘는 지구상 가장 강력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성경을 통한 문화예술산업화 및 선점효과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직위는 관람객 500만명(외국인 30만명) 유치로 목표로 세웠으며, 연인원 약 3만여명의 고용창출과 3천억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 수익금을 통해서서는 국내외 불우시각 장애인을 위한 개안수술과 백내장 수술, 고용창출을 통한 나눔실천, 아프리카 사랑의 우물파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www.bibleexpo2010.com) (조요한 기자)



김영진 장로가 The Bible Expo 2010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L.A. AUTO 정비

ASE GM DAEWOO State of California LICENSED SMOG CHECK TEST & REPAIR STATION 24hr 213.247.6657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OPEN 7DAYS A WEEK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기독일보와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후원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함세배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hc.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김훈근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수요일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

그레이스마운트교회
 담임: 김기환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3550 W. 6th St, LA, CA 90020
 T. (213) 448-9999

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울 목사
 주일기도회 오전 9:50 주일성경공부 오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일(중동부) 오후 4시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 (213) 550-73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나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아(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아)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동양선교회
 임동선 원로 목사
 1부예배 오전 7:00 4부예배 오전 12:15
 2부예배 오전 8:30 새벽예배 오후 2:30
 3부예배 오전 10:15 E.M 오후 12:00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 www.omic.org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EM예배 오전 11:0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노래예배 매일 오전 7:00(더너우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일)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새창조교회
 담임: 최학량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찬양경배 오후 1: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325-0501 / F. (310) 325-4282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섬있는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아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오렌지새영교회
 담임: 임병철 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후 1:00 (토) 오전 7:00
 셀모임 오전 7:00(토)
 315 S Knott Ave #206 Anaheim, CA 92804
 T. (714) 900-1008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헬로십교회
 담임: 안충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15
 중고등부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T. (562) 944-8082

에바다선교회
 담임: 이송준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7:00
 (월-금) (1,3,5째주 토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

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 오후 1:00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213) 739-0515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춘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축복교회
 담임: 김민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아)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 (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8:0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십)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정오 12:30(분반)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하나로교회
 담임: 박문환 목사
 1부예배 오전 8:40 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0:4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2:00
 3233 English Rd. Chino Hills, CA 91709
 T. (909) 464-9210 / F. (909) 548-4536

한인어린이회
 회장: 테레사 임 목사
 (어린이 선교회)
 비영리 법인주 연방정부 IRS
 T. (213) 380-1112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헤브론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AWANA 주일 오후 1:00
 3부예배 오후 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4050 W. Pico Bl., Los Angeles, CA 90019
 T. (323) 735-8677 / F. (323) 735-9606

Coffee Break Small Groups
 대표: 백은실 집사
 www.coffeebreakkorea.org
 coffeebreakgrace@hotmail.com
 8208 Pappertree Ln., Cypress, CA 90630
 T. (714) 995-4461 / F. (714) 974-3017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의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미국교회 빌려 쓰며 몽골교회 돕다 성전 구매

글렌뷰한인교회 헌당감사 및 영적대각성 집회

글렌뷰한인교회가 그동안 렌트 해서 사용하고 있던 글렌뷰 소재 700 Greenwood의 건물을 지난 4월 말 최종 구매하며 자체 성전을 보유 한 교회로 발돋움했다. 이 건물은 글렌뷰한인교회와 동일한 복음 언약교단에 속해 있던 백인교회가 교세 감소로 인해 문을 닫으면서 최종적으로 글렌뷰한인교회가 이를 구매, 인수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구제회 담임목사는 “자체 성전을 가진 교회로 성장한 것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며 “시카고 지역 한인사회 복음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렌뷰한인교회는 그동안 미국교회를 빌려 쓰는 입장이면서도 시카고 지역의 몽골인교회인 안디옥교회가 함께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왔다. 수십년 전, 한인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대부분이 미국교회의 도움을 받아 시작됐던 것처럼 한인교회가 자리잡

은 이 시점에서 한인교회도 갖게 되는 타민족 교회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이제 자체 건물을 갖게 된만큼 몽골인교회를 돕는 일도 좀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 목사는 “서로 말도 다른 타민족과 함께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 불편이 적지 않지만 복음을 위해서인데 그 정도 불편함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글렌뷰한인교회는 이번 일을 감사하며 “헌당감사 및 영적대각성 집회”를 “지금 다시 시작하라”는 주제 아래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개최한다. 강사는 서울명문교회 이덕진 목사이며 21일 저녁 8시, 22일 새벽 6시, 저녁 8시, 23일 새벽 5시 30분, 오전 11시, 저녁 6시다. 문의) 847-962-8951

〈김준형 기자〉



글렌뷰한인교회



미드웨스트기독교TV 대표 김왕기 장로가 기자회견을 열고 24시간 방송을 소개하고 있다.

미드웨스트기독교TV, 7월부터 24시간 방송

매주일 공중파 41번에서 2 시간동안 기독교 방송을 송출하던 미드웨스트기독교텔레비전이 24시간 방송 시대를 연다. 매주일 30분으로 시작한 방송 사업이 6년만에 주7일 24시간으로 확대되면서 크리스천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다가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미드웨스트기독교TV가 콘텐츠 협약을 맺고 시카고 한인들에게 제공하게 될 내용은 한국CBS 기독교TV, 한국경제TV, 정철영어TV, YTN, EBS 등이다. 한국의 대표적 기독교 방송인 CBS를 통해서 다양한 기독교적 콘텐츠를 제공받으며 YTN에서는 한국 뉴스를 전송받는다. 특히 EBS를 통해서 한인들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교양, 교육 프로그램을, 정철영어TV를 통해서 한인들이 쉽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계획이다.

전체 방송 가운데 절반은 기독교적,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편성되며 이중 미드웨스트기독교TV가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매일 2시간 가량 된다. 대표 김왕기 장로는 “일반

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일반적 내용과 기독교적 내용을 교차 편성하며 자체 제작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중파 아날로그 채널 41번을 한미TV로부터 매주일 2시간 대역해 사용해 오던 미드웨스트기독교TV는 41번이 7월 1일부로 디지털화되면서 41.3 채널을 독자적으로 사용해 24시간 동안 방송을 송출하게 된다. 디지털 TV를 보유한 사람은 별도의 설치나 비용없이 시청 가능하며, 아날로그 TV를 보유한 사

람은 DTV 컨버터 박스를 구매해야 시청할 수 있다.

김 장로는 “복음전파 목적으로 시작된 방송이니만큼 본연의 목표를 잊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시카고 한인들에게 광범위한 TV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 민사회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4시간 방송은 7월 1일 자정부터 시작되며 이날 오후 6시에는 감사예배와 기념식,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김준형 기자〉

굿쉐퍼드 어린이, 홈리스에 사랑 전달

3개월간 가사 도우며 모금 활동

네이퍼빌 소재 굿쉐퍼드교회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2월부터 4월까지 Bean Project를 벌여 최근 오로라에 있는 홈리스 보호소인 헤세드 하우스에 전달했다. 굿쉐퍼드 어린이들은 3개월동안 부모님의 가사를 돕는 Job Ticket을 통

해 기금을 모았으며 홈리스들의 저녁 식사에 사용될 Bean Can을 사서 전달했다. 김재범 담임목사는 “어린이들이 불우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미드웨스트기독교TV 대표 김왕기 장로가 기자회견을 열고 24시간 방송을 소개하고 있다.

맹인거지에서 시각장애우 돕는 목사로

김선태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국전쟁 중에 부모를 잃고 눈도 잃고 거지생활을 전전하던 그가 목사가 되고 병원이 되어 그대에 3만명이 넘는 시각장애우가 개안수술을 받았고 40만명이 무료 진료료를 받았다.

그가 9살 때 한국전쟁이 터졌다. 밖에 나가서 놀다 와 보니 집이 폭

서도 도망 나온 그는 거지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보통 거지는 아니었다. 거지 생활 중 만난 할머니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가게 됐다. 앞을 못본다고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음식이나 돈을 주면 그것을 꼭 다른 거지들과 나누었다. 그리고 동냥받은 돈이라도 십일조를

학대학원을 거쳐 목사가 됐다. 나중에는 맥코믹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그는 1972년 시각장애우를 위한 교회를 세워 점자성경과 점자찬송을 보급했으며 1986년 실로암안과 병원을 개원하며 시각장애우를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가난한 이들에게 진료는 무료이고 개안수



김선태 목사

애우를 돕고 그들에게 빛과 소망을 전해 주기 위해 전세계를 다니며 메시지를 전하고 모금해 충당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게 활동하던 김 목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필리핀 정부가 수여하는 막사이사 이상 덕이다.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이 상은 장애우 사역에 헌신한 공을 인정해 필리핀 정부가 직접 김 목사에게 수여했다. 그는 오늘도 자신과 같은 시각장

〈김준형 기자〉

실로암안과병원 김선태 목사 시카고 집회

격대 부모는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고아가 된 아이는 남의 밭의 과일을 서러해 먹다 이번에는 수류탄이 터져 양눈을 잃었다. 함께 있던 친구 8명은 모조리 죽은 상황이었다. 그렇게 살아남은 인생은 모질었다. 의지할 곳을 찾아 헤매다 친척의 집으로 갔지만 매달고 욕먹는 게 일이었다. 수십번도 자살을 결심했지만 그때마다 “죽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한다. 결국 친척의 집에

하는 그런 거지였다. 주일에 교회에 갔다가 거지라고 쫓겨나면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열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미군의 도움으로 학교에 입학할 길이 열렸고 점자를 공부할 수 있었지만 당시 시각장애우가 할 수 있는 일은 전국을 돌며 안마하는 일 밖에 없었다. 그러다 미국인 선교사를 만나 당시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학인 숭실중학교에 입학해 송실고, 송실대까지 진학했고 장로회신

술은 3분의 1 가격이다. 모자라는 돈은 김 목사가 직접 전국을 다니며 메시지를 전하고 모금해 충당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게 활동하던 김 목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필리핀 정부가 수여하는 막사이사 이상 덕이다.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이 상은 장애우 사역에 헌신한 공을 인정해 필리핀 정부가 직접 김 목사에게 수여했다. 그는 오늘도 자신과 같은 시각장

여드름 완치!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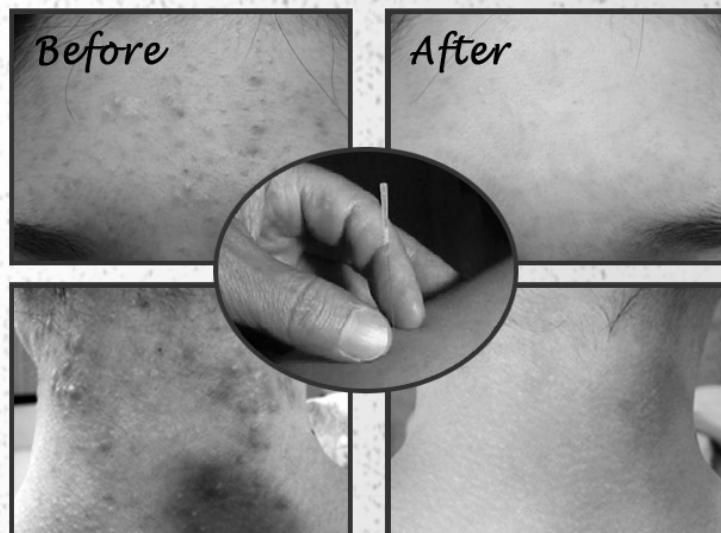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 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과 대학 교수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Tel. 213-380-0835

빠짐없이 집계하기 위해 인구조사원이 방문합니다



아직 2010년 인구조사 양식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친절한 인구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합니다. 이 양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답변으로 커뮤니티가 교육환경 개선과 직업 훈련 증진 등에 쓰일 정부지원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원을 반갑게 맞아주셔서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 커뮤니티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 인구조사는 법적으로 누구나 참여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해드립니다.
- 인구조사원은 공식적인 ID를 가지고 있으며 기밀유지를 서약하였습니다.
- 인구조사 참여는 해마다 분배되는 정부지원금 4,000억 달러 이상을 우리 커뮤니티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커뮤니티를 돕는 인구조사원에게 협조해 주십시오

United States™
**Census
2010**

미국인구조사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성현 칼럼



이성현 목사 드림교회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의 날(Mother's Day)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신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고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사랑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

자를,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장점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모습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모습, 모자라는 모습도 받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우리의 자격 유무를 따지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 모습을 지닙니다.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지만, 사랑할 만한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사랑합니다. 배우

라하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의 삶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기에 이 같은 사랑은 끝없는 참음, 인내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음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 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화복 제물을

돌아가시기까지 참으셨으니 정말 무던히도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노래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말할 때 무엇보다 먼저 시작할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참음으로 시작됩니다. 무엇으로 끝맺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동포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남성수 칼럼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지금부터 약 8~9년 전 즈음으로 기억이 됩니다. 코네티컷 주에는 단일 규모로는 미국에서 가장 큰 카지노 호텔이 있습니다. 팍스우드(Foxwood)라는 카지노입니다.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있는 이 카지노는 영적으로 참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 호텔에 정문에 첫발을 내딛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한 마디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카지노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몇 팀으로 나누어서 카지노를 돌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행위를 그 현장에서 할 수 없었기에 그냥 여기고 돌듯이 그현장을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겁도 났습니다. 워낙 감시카메라가 철저히 감시를 하기 때문에 수상한 사람들을 즉시 발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조심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교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후 습관적으로 가던 자들이 그 횡수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가끔 가던 자들은 카지노를 가는 것이 단순히 유희가 아니라 영적인 일임을 알게

Foxwood Hotel에서의 전도

순간부터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낍니다.

호텔 측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잘 끌어 모으는지 두 시간 거리의 뉴욕과 보스턴에서 그 호텔까지 전용 헬리콥터를 마련해 놓고 큰손들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합니다. 이 중의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노인들에게는 관광버스와 점심 값, 카지노에서 놀 수 있는 일정한 돈까지 제공하며 손님들을 실어 옵니다. 여기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냥 재미삼아 갔다가 자기 돈까지 다 잃고 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지역의 한인 사회가 참으로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섬겼던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도 이 팍스우드 카지노에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시던 한 집사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저에게 제의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곳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습니다. 저곳을 향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리낌 없이 했던 도박이 바로 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박으로 피폐해졌던 개인과 가정의 그것이 죄임을 알게 되자 끊고 결단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이것은 전도팀들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월에 캄보디아와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복음 만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임을 확인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좋은 것도 아니요 싫은 것도 아닌 아무런 감정도 없는 듯 한 무표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혜택 속에 사는 아이들, 청소년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고, 사람들을 만날 때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들에게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만이 무너진 사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 만이 얼어붙은 땅 북한을 녹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5월5일을 어린이 날로 지키며 자녀 교육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날로 지키고 있다.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사업을 하고, 10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교육에 투자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명문대학이라고 다니는 학교는 대부분 적어도 100년을 내다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세운 학교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교민들이 “왜 이민 오셨는가?”를 물어보면 대부분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고 한다. 그러나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는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한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잘 키우려면 우선 자녀를 그르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육 전문가들이 제시한 10 가지 ‘자녀들을 망치는 길’이 있다.

1) 자녀가 자기 방에 지저분하게 어지러 놓은 물건이나 빨랫감들을 어머니가 꼭박꼭박 치우라. 이 아이는 커서도 손 하나 움직이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것이다.

2) 자녀들이 밥투정, 옷 투정 등 불평을 할 때 모두 들어주라. 감사보다는 늘 불평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3) 자녀들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라.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

터 싸우는 것을 배우고 나쁜 바람으로 자라 날 것이다.

4) 자녀들이 학교 선생님을 욕할 때는 맞장구를 치라. 어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는 부모조차 무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5)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대충 넘어가라. 나중에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녀교육에 성공하라

6)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라. 점점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7)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등한히 해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만 믿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8) 자녀들이 늦게 귀가해도 무관심 하라. 결국 방탕한 길로 어두운 길로 빠지게 될 것이다.

9) 자녀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으라.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10) 자녀들에게 미소보다는 우울한 표정이나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아이는 자라면서 비관론자가 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미국의 위기는 사실 경제의 위기도 아

니고, 정치의 위기도 아니고 교육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1960년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이후 공립 학교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폐지한 후 미국의 학교에서는 마약, 강간, 총기사고, 패싸움 등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교육의 재앙이 시작된 것이다.

성경 잠언에 보면(잠 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

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교육의 실패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 그것은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 만일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면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울 곳이 없다.

좋은 학교에 보낸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비싼 수업료를 많이 내도 인생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배울 수 없다.

몇 년 전 한국에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를 죽이고 시체를 토막 내어 쓰레기 봉지에 담아 버린 살인사건인데 경찰이 수사 끝에 잡

은 범인은 다름 아닌 그 아들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당시 한 명문 대학에 교수로 있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라고 엄청난 돈을 들여 미국까지 유학을 보내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여 교수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세상 공부를 많이 시켰는지 모르지만, 마땅히 가야 할 인생의 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아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그 아들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인생이 평생 걸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학교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집에서 부모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방동섭 칼럼



방동섭 목사 미주성산교회

대한민국 일등 병원 ‘아산병원’, 미주 일등 기독교신문 ‘기독교일보’와 함께 하는 미주 일등 관광 ‘LA아주관광’의 名品 의료관광!

- 1. 교민들을 위한 프리미엄 VIP의료서비스(미주교민 특별우대)
아주관광에 포함된 전문의료진이 무료 건강상담 및 개인별 맞춤 건강검진 프로그램 설계 수행
2. 2009 글로벌 고객만족 1위 2년 연속 수상한 서울아산병원
3. 국내 의료계 최초 암센터 부문, 대한민국 명품 선정

기독교일보 - 안심 프로그램... 남/여 \$3499
정밀검사: 흉부X선(전후, 측면), 중앙표지자간암, 대장암, 담도암, 심전도, 복부초음파, 심전도, 복부초음파, 혈액정밀검사
공통검사: [공통] 위내시경(수면), 대장내시경(수면), 흉부CT, 복부골반CT, 뇌MRI, [남] 중앙표지자(전립선암), 전립선초음파, 심장운동부하, 심장초음파, [여] 중앙표지자(난소암), 유방X선, 액상자궁경부암, 골반초음파 or 유방초음파,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흉추요추X선

대한민국 일등 병원 '아산병원', 미주 일등 기독교신문 '기독교일보'와 함께 하는 미주 일등 관광 'LA아주관광'의 名品 의료관광!
역시 효자다! 서울아산병원의 건강검진이 역시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30년 이민생활에 자식 키우느라 이제껏 여행 한번 못가보신 우리 부모님, 지금도 우리를 뒷바라지에 고생하시는 부모님, 한국내 최고 아산병원과 미국내 1등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이제껏 한번 못다한 효자노릇 하겠습니까.
대표전화 (213)388-4000 • 1-800-933-3011 • 서울 02-522-8686

박성근 칼럼



박성근 목사 LA한인침례교회

독일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한 신하에게는 "너는 이 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잡초를 되도록 많이 수집해 오라"고 명하고, 다른 신하에게는 "되도록 많은 꽃을 수집해 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일 년 후 잡초를 맡았던 신하가 돌아와서 보고 했습니다. "잡초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저희 나라는 온 땅이 잡초로 덮혀 있습니다" 반면에 꽃 수집을 맡았던 신하는 "우리나라가 이처럼 아름다운 꽃동산인줄 몰랐습니다. 온

땅이 꽃으로 덮혀 있습니다" 라고 보고 했습니다. 찾으려는 안목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교훈입니다. 굽벙이를 찾는 자에게 굽벙이만 보이게 되고, 나비를 찾는 자에게 수많은 나비가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정적 안목을 가지고 사는 자

에게 무엇을 주어도 불평합니다. 그러나 신앙적 안목을 가진 자는 그 어두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터전 자체가 항상 밝거나 어두운 것은 아닙니다. 밝은 곳도 있고 흐린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눈이 밝으면 주어진 여건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음의 눈을 건강하게 가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육체를 강하게 만드는 일에는 온갖 노력을 투자하는 반면에 마음을 가꾸는 일에는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모든 문제는 비뚤어진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건강합니까?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려면 날마다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치고 앉아서 쓸데없는 논쟁에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사역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도 밝아지고 세상도 밝아질 것입니다.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마음, 건강한 눈으로 밝고 빛나게 사시길 바랍니다.

낮이 점점 길어져 야외활동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운동과는 답을 쌓고 있던 분들도 운동을 시작해 볼까 생각하고 있더군요. 그중 가장 쉽고 거의 돈이 안 들지만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운동효과는 매우 뛰어난 것이 바로 달리기입니다. 얼핏 생각할 때 달리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도 그 효과는 천지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이 종목인 만큼 주의점을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달리가 좋다고 무조건 달리는 것은 인상이 좋은 보약이라고 무작정 달여 먹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겪게 되는 수도

으로 시작했다면 이 정도를 소화하기에도 힘겨울 수 있으므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각각 20~30분씩 하면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달리는 근육과 지구력 향상을 통해 신체활동 능력을 향상시켜, 안 걷고 안 뛰어서 생기는 생활 습관병이라 할 수 있는 고혈압과 동맥경화, 심장병,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의 위험을 많이 낮추어주고 당연히 평균 수명도 늘어줍니다. 달리를 시작한 뒤 당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신체변화는 심장을 쥐어짜주는 기능이 강화돼 심장 박동 수가 감소된답니다. 뛰어난 마라톤러, 축구선수, 테니스 선수들의 맥박이 느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달리를 통해 이들과 유사한 건강한 심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방 칼럼



이명종 교수 LA 동국대학교

달리기 등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평균 수명이 서너 살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달리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질병은 고혈압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인데, 심장과 폐가 튼튼해지면

인간의 마음에는 옛 생각이 철옹성처럼 진을 치고 그 거점을 강력히 내리고 있다. 세상의 거리에서 마구 주어들어 경험이나 정보가 여과 없이 축적된 그런 혼란한 사고들이 혼재해있기도 한다. 세속적이며 선정적인 미디어가 뿜어내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무절제하게 밀려오고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런 무가치한 것들을 여과 의식이 없이 대하고 그런 것에 의해 자극을 받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나 보다" 라고 쫓대 없이 유혹을 받기도 한다. 불신의 가정에서 자라나 부지불식간에 형성된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있다. 광고, 대중문화,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세상의 가치관도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진리와 어긋난 인생관이 주입되기도 한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대학교 교수 중에는 동성연

애자며 무신자론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들에 의해 우리 자녀들이 오염되기도 한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가치관들이 내 사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는 치열한 전쟁터이기도 하다. 인간의 타락으로 그 지성은 심히 어두워 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 10:4에 그러한 인본주의적이며 세속적인

생각, 타락한 생각,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 새롭고도 바른 생각으로 바뀌어 나간다.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새로운 생각, 위대한 생각, 참된 생각이 임한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기 시작할 때 신선한 생각이 깃들기 시작한다. 긍정의 생각, 믿음의 생각, 좋은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밀려온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언어를

달리기가 건강에 좋다는데...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초보자중 성인병이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우선 자신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알아보기 위한 검진부터 시작해야겠지요.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라면 걷기와 달리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고 하루에 30~40분씩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이 약한 분이 운동치료를 목적으로

특히 심장이 약해 분당 85회 이상 맥박이 자주 뛰는 사람은 4주만 규칙적으로 달려도 분당 맥박수가 80회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으며, 이는 달리를 통해 심장근육이 강화되고 심장기능도 향상되어 맥박 수는 감소하지만 심장이 한번 펌프질하는 혈액량은 증가해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입니다.

로 스트레스 조건에서도 혈압의 변동이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열량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당뇨나 비만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골다공증에도 매우 좋지요. 특히 땅에 체중을 실어 쿵쿵 내딛는 달리기 운동이 골 밀도를 높일 수 있어, 여성들의 골다공증 예방에 수월이나 에어로빅보다 효과적인 운동이 됩니다. 암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전립선암과 유방암, 대장암 등 호르몬과 관련된 암은 달리기 등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발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중년 이후에 달리를 시작하는 것이라면 사전검사를 통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체크해야 합니다. 달리는 동안에 우리의 심장박동은 빨라지고 혈압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새 생각을 품으며 삽시다

가치관들을 총체적으로 모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견고한 진이 우리의 사고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모든 행동과 판단의 준거점이 된다. 이러한 견고한 진들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극복해 낼 수 없다. 그것은 죄악의 권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근본적인 심성이기 때문이다. 그것과 싸우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추구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내는 길은 우리의 사고를 성서적이며 신앙적 세계관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타락한 사고와 마음은 혼란하고 복잡하고 뒤엉켜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그 사고와 마음속에 비추기 시작하며 은혜의 빛이 임한다. 우리의 어두운

바꾸고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한다.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인생의 현실이 결코 바뀌는 법이 없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퇴각을 한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며 소멸된다. 새로운 하나님 중심의 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 훈련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훈련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의 의식 안에 존재하는 비성서적인 사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손상시킨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과 마음이 스며들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단단하고 새롭게 해야 한다. 그리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과 비전을 추구할 수 있다. 새 생각으로 무장하여 새해를 향해 전진해 나가자!

정인수 칼럼



정인수 목사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기독일보, 아주관광의 협업 프로모션에 의한 특별가격!

출발일 : 9월 27일, 10월 25일

기독일보와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성지 순례

이스라엘 6박 7일

\$2800 \$2150

방문지: 텔아비브, 예루살렘, 마사다, 쿨란, 갈릴리, 가버나움, 베들레헴, 가이사라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 10박 11일

\$3300 \$2599

방문지: 카이로, 시내산, 타바, 에일랏트, 페트라, 암만, 느보산, 예루살렘, 사해, 쿨란, 텔아비브, 올바, 갈릴리, 가버나움

- 1. INCLUDE 갈릴리 유람선, 호텔/차량/식사 비용, 가이드, 국제선 항공권
- 2. EXCLUDE 비자 FEE, 이스라엘 출입국세, 뱃산으로의 국경통과시, 실로암 입장료
- 3. OPTION 시내산 낙타등반, 흥해해저 수족관, 가이드/드라이버 TIP, 식당 TIP, 음료, 기타 개인 소요비용

※ 자세한 일정과 호텔/식사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el. 213-388-4000

http://www.usajutour.com,aju@usajutour.com,ajutour@hotmail.com(LA본사) Fax. 213-387-1006 3053 W.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의 정육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Prime 과 Choice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갈비 전문점/교회 단체 특별가격

프라이머 생등심 프라이머 갈비살 사브 사브	프라이머 꽃살 초이스 껌갈비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오리고기 목염소 돈가스/비프가스
-------------------------------	-----------------------------------	-------------------------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11가점 (1호점) Tel 323.733.4677

웨밀리 종합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 리스 · 중고차 매매

여러분의 중고차를 가장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정직 · 신용 · 믿음으로 모시겠습니다

213.453.5900

김기형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삼성이 하면 다음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시내 · 장거리 · 귀국 · 사무실 · 창고이전 · 포장이사

행복이삿짐

고객에게 드리는 약속
항상 미소... 항상 정성... 항상 친절을...

작은일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Tel. 323-733-2433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40 한달 온가족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하루에 1불 조금 넘는 저금액으로 지키세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비싼 병원비를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 \$40 한달 온가족
지금 전화 주세요.....

JAMES JHUNG (제임스 정)
EXECUTIVE DIRECTOR

Tel: 213.725.7217 세월조 하실분 모집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 CD - DVD
- 영상 -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SK smart-naephone

- SK한국전화기를 설치, 한국전화번호를 받고 한국시내요금으로 미국, 한국 양방향 통화
- 서울전화번호만 누르세요
- 분당 2¢의 저렴한 요금

Taurus System USA Inc.

문의: 213-435-0608

반값으로 할수있다!

- 차바디수리 50% 절약 -

“획기적인 바디수리 시스템”
오토맥스 오토바디

213-265-8485, 213-388-4464
Main Office 2975 Wilshire Blvd 350 Los Angeles, CA 90010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조경공사 랜드스캐닝

연못, 징검다리, 분수, 폭포, 정원

213-909-5518

자재사육, 자체차량, 전문고급인력, 30년 경험의 현대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삿짐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 드립니다.

전미주지역을 완벽하게 커버하고있는 현대통운의 지사망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타주 이사, 시내 이사, 귀국 이사

무료전화 1-866-545-2424
323.766.1111
3022 S. Western Ave, LA, CA 90018
www.HyundaeMoving.com e-mail: skook@hyundaeimoving.com

LANCE WANG 커튼

Window Treatment

타운의 유일한 디자이너 커튼 전문점
신세대 혼수 / 침대커버 / 쿠션
최고급 유럽원단
저렴한 가격 / 무료견적

Cushions, Bedding, Collectibles
213-384-5844, LA / 3개의 웨스턴
www.Lancewanginterior.com

블라인드 카텐 전문업체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을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한국 ₩ ↔ 미국 \$

당일 동시 (고액 전문)
(213) 388 - 4989
소액도 가능합니다

건축 설계 도면 디자인

이경신 Kyong S. Lee (Mary)
Interior & Landscaping Designer,
Architecture Web & Graphic Designer

ARCHITECTURE DESIGN
INTERIOR DESIGN
LANDSCAPING DESIGN
PERMIT DRAWING

E-2 Visa 및 투자 이민 가능하며, 언제든지 투자 상담 환영합니다.
미국으로 이민해서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Income이 나올수 있도록) 설계해 드립니다.
※ 컴퓨터 개인교습도 가능합니다.

Subject : Microsoft Office, Word, Excel, Powerpoint
Photoshop, Illustrator, Webdesign course

Tel. 213-284-4111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컴퓨터 HIS.COM 출장수리전문

오른기법 세일 컴퓨터 수리 start \$29

- 컴퓨터 판매, 수리
- 컴퓨터 조립, 공구, 수리, 파일백업 및 관리
- DVR/IP CAMERA
- 4CH DVR \$1,199

213-810-4000

"모든 자동차 유리 수리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아메리칸 자동차 유리

Cheap Repair!

- Foreign & Domestic Car
- 새 유리 & 중고 유리
- 넓은 웨어하우스 인벤토리
- 무료 전화 견적
- Low, Low Prices
- Complete 오토글래스 서비스
- 한국어, 스페니쉬, 영어 서비스
- Stone Damage 수리

동 맞은 곳 때워 드립니다.
www.americanautoglassinc.net
Tel : (323) 752-1820
2062 W Florence Ave, Los Angeles, CA 90047

냉난방기 설치 전문업체 경력 30년 유영브랜드 냉난방기 전문 취급업체 / 미주 전지역 LG, 현대, 휘너, 삼성등만

AMAZING 에어컨백화점

7년 연속에어컨 1위

에어컨 23, 24, 25, 26, 27, 28, 30, 36, 42, 48, 54, 60, 66, 72, 78, 84, 90, 96, 102, 108, 114, 120, 126, 132, 138, 144, 150, 156, 162, 168, 174, 180, 186, 192, 198, 204, 210, 216, 222, 228, 234, 240, 246, 252, 258, 264, 270, 276, 282, 288, 294, 300, 306, 312, 318, 324, 330, 336, 342, 348, 354, 360, 366, 372, 378, 384, 390, 396, 402, 408, 414, 420, 426, 432, 438, 444, 450, 456, 462, 468, 474, 480, 486, 492, 498, 504, 510, 516, 522, 528, 534, 540, 546, 552, 558, 564, 570, 576, 582, 588, 594, 600, 606, 612, 618, 624, 630, 636, 642, 648, 654, 660, 666, 672, 678, 684, 690, 696, 702, 708, 714, 720, 726, 732, 738, 744, 750, 756, 762, 768, 774, 780, 786, 792, 798, 804, 810, 816, 822, 828, 834, 840, 846, 852, 858, 864, 870, 876, 882, 888, 894, 900, 906, 912, 918, 924, 930, 936, 942, 948, 954, 960, 966, 972, 978, 984, 990, 996, 1002, 1008, 1014, 1020, 1026, 1032, 1038, 1044, 1050, 1056, 1062, 1068, 1074, 1080, 1086, 1092, 1098, 1104, 1110, 1116, 1122, 1128, 1134, 1140, 1146, 1152, 1158, 1164, 1170, 1176, 1182, 1188, 1194, 1200, 1206, 1212, 1218, 1224, 1230, 1236, 1242, 1248, 1254, 1260, 1266, 1272, 1278, 1284, 1290, 1296, 1302, 1308, 1314, 1320, 1326, 1332, 1338, 1344, 1350, 1356, 1362, 1368, 1374, 1380, 1386, 1392, 1398, 1404, 1410, 1416, 1422, 1428, 1434, 1440, 1446, 1452, 1458, 1464, 1470, 1476, 1482, 1488, 1494, 1500, 1506, 1512, 1518, 1524, 1530, 1536, 1542, 1548, 1554, 1560, 1566, 1572, 1578, 1584, 1590, 1596, 1602, 1608, 1614, 1620, 1626, 1632, 1638, 1644, 1650, 1656, 1662, 1668, 1674, 1680, 1686, 1692, 1698, 1704, 1710, 1716, 1722, 1728, 1734, 1740, 1746, 1752, 1758, 1764, 1770, 1776, 1782, 1788, 1794, 1800, 1806, 1812, 1818, 1824, 1830, 1836, 1842, 1848, 1854, 1860, 1866, 1872, 1878, 1884, 1890, 1896, 1902, 1908, 1914, 1920, 1926, 1932, 1938, 1944, 1950, 1956, 1962, 1968, 1974, 1980, 1986, 1992, 1998, 2004, 2010, 2016, 2022, 2028, 2034, 2040, 2046, 2052, 2058, 2064, 2070, 2076, 2082, 2088, 2094, 2100, 2106, 2112, 2118, 2124, 2130, 2136, 2142, 2148, 2154, 2160, 2166, 2172, 2178, 2184, 2190, 2196, 2202, 2208, 2214, 2220, 2226, 2232, 2238, 2244, 2250, 2256, 2262, 2268, 2274, 2280, 2286, 2292, 2298, 2304, 2310, 2316, 2322, 2328, 2334, 2340, 2346, 2352, 2358, 2364, 2370, 2376, 2382, 2388, 2394, 2400, 2406, 2412, 2418, 2424, 2430, 2436, 2442, 2448, 2454, 2460, 2466, 2472, 2478, 2484, 2490, 2496, 2502, 2508, 2514, 2520, 2526, 2532, 2538, 2544, 2550, 2556, 2562, 2568, 2574, 2580, 2586, 2592, 2598, 2604, 2610, 2616, 2622, 2628, 2634, 2640, 2646, 2652, 2658, 2664, 2670, 2676, 2682, 2688, 2694, 2700, 2706, 2712, 2718, 2724, 2730, 2736, 2742, 2748, 2754, 2760, 2766, 2772, 2778, 2784, 2790, 2796, 2802, 2808, 2814, 2820, 2826, 2832, 2838, 2844, 2850, 2856, 2862, 2868, 2874, 2880, 2886, 2892, 2898, 2904, 2910, 2916, 2922, 2928, 2934, 2940, 2946, 2952, 2958, 2964, 2970, 2976, 2982, 2988, 2994, 3000, 3006, 3012, 3018, 3024, 3030, 3036, 3042, 3048, 3054, 3060, 3066, 3072, 3078, 3084, 3090, 3096, 3102, 3108, 3114, 3120, 3126, 3132, 3138, 3144, 3150, 3156, 3162, 3168, 3174, 3180, 3186, 3192, 3198, 3204, 3210, 3216, 3222, 3228, 3234, 3240, 3246, 3252, 3258, 3264, 3270, 3276, 3282, 3288, 3294, 3300, 3306, 3312, 3318, 3324, 3330, 3336, 3342, 3348, 3354, 3360, 3366, 3372, 3378, 3384, 3390, 3396, 3402, 3408, 3414, 3420, 3426, 3432, 3438, 3444, 3450, 3456, 3462, 3468, 3474, 3480, 3486, 3492, 3498, 3504, 3510, 3516, 3522, 3528, 3534, 3540, 3546, 3552, 3558, 3564, 3570, 3576, 3582, 3588, 3594, 3600, 3606, 3612, 3618, 3624, 3630, 3636, 3642, 3648, 3654, 3660, 3666, 3672, 3678, 3684, 3690, 3696, 3702, 3708, 3714, 3720, 3726, 3732, 3738, 3744, 3750, 3756, 3762, 3768, 3774, 3780, 3786, 3792, 3798, 3804, 3810, 3816, 3822, 3828, 3834, 3840, 3846, 3852, 3858, 3864, 3870, 3876, 3882, 3888, 3894, 3900, 3906, 3912, 3918, 3924, 3930, 3936, 3942, 3948, 3954, 3960, 3966, 3972, 3978, 3984, 3990, 3996, 4002, 4008, 4014, 4020, 4026, 4032, 4038, 4044, 4050, 4056, 4062, 4068, 4074, 4080, 4086, 4092, 4098, 4104, 4110, 4116, 4122, 4128, 4134, 4140, 4146, 4152, 4158, 4164, 4170, 4176, 4182, 4188, 4194, 4200, 4206, 4212, 4218, 4224, 4230, 4236, 4242, 4248, 4254, 4260, 4266, 4272, 4278, 4284, 4290, 4296, 4302, 4308, 4314, 4320, 4326, 4332, 4338, 4344, 4350, 4356, 4362, 4368, 4374, 4380, 4386, 4392, 4398, 4404, 4410, 4416, 4422, 4428, 4434, 4440, 4446, 4452, 4458, 4464, 4470, 4476, 4482, 4488, 4494, 4500, 4506, 4512, 4518, 4524, 4530, 4536, 4542, 4548, 4554, 4560, 4566, 4572, 4578, 4584, 4590, 4596, 4602, 4608, 4614, 4620, 4626, 4632, 4638, 4644, 4650, 4656, 4662, 4668, 4674, 4680, 4686, 4692, 4698, 4704, 4710, 4716, 4722, 4728, 4734, 4740, 4746, 4752, 4758, 4764, 4770, 4776, 4782, 4788, 4794, 4800, 4806, 4812, 4818, 4824, 4830, 4836, 4842, 4848, 4854, 4860, 4866, 4872, 4878, 4884, 4890, 4896, 4902, 4908, 4914, 4920, 4926, 4932, 4938, 4944, 4950, 4956, 4962, 4968, 4974, 4980, 4986, 4992, 4998, 5004, 5010, 5016, 5022, 5028, 5034, 5040, 5046, 5052, 5058, 5064, 5070, 5076, 5082, 5088, 5094, 5100, 5106, 5112, 5118, 5124, 5130, 5136, 5142, 5148, 5154, 5160, 5166, 5172, 5178, 5184, 5190, 5196, 5202, 5208, 5214, 5220, 5226, 5232, 5238, 5244, 5250, 5256, 5262, 5268, 5274, 5280, 5286, 5292, 5298, 5304, 5310, 5316, 5322, 5328, 5334, 5340, 5346, 5352, 5358, 5364, 5370, 5376, 5382, 5388, 5394, 5400, 5406, 5412, 5418, 5424, 5430, 5436, 5442, 5448, 5454, 5460, 5466, 5472, 5478, 5484, 5490, 5496, 5502, 5508, 5514, 5520, 5526, 5532, 5538, 5544, 5550, 5556, 5562, 5568, 5574, 5580, 5586, 5592, 5598, 5604, 5610, 5616, 5622, 5628, 5634, 5640, 5646, 5652, 5658, 5664, 5670, 5676, 5682, 5688, 5694, 5700, 5706, 5712, 5718, 5724, 5730, 5736, 5742, 5748, 5754, 5760, 5766, 5772, 5778, 5784, 5790, 5796, 5802, 5808, 5814, 5820, 5826, 5832, 5838, 5844, 5850, 5856, 5862, 5868, 5874, 5880, 5886, 5892, 5898, 5904, 5910, 5916, 5922, 5928, 5934, 5940, 5946, 5952, 5958, 5964, 5970, 5976, 5982, 5988, 5994, 6000, 6006, 6012, 6018, 6024, 6030, 6036, 6042, 6048, 6054, 6060, 6066, 6072, 6078, 6084, 6090, 6096, 6102, 6108, 6114, 6120, 6126, 6132, 6138, 6144, 6150, 6156, 6162, 6168, 6174, 6180, 6186, 6192, 6198, 6204, 6210, 6216, 6222, 6228, 6234, 6240, 6246, 6252, 6258, 6264, 6270, 6276, 6282, 6288, 6294, 6300, 6306, 6312, 6318, 6324, 6330, 6336, 6342, 6348, 6354, 6360, 6366, 6372, 6378, 6384, 6390, 6396, 6402, 6408, 6414, 6420, 6426, 6432, 6438, 6444, 6450, 6456, 6462, 6468, 6474, 6480, 6486, 6492, 6498, 6504, 6510, 6516, 6522, 6528, 6534, 6540, 6546, 6552, 6558, 6564, 6570, 6576, 6582, 6588, 6594, 6600, 6606, 6612, 6618, 6624, 6630, 6636, 6642, 6648, 6654, 6660, 6666, 6672, 6678, 6684, 6690, 6696, 6702, 6708, 6714, 6720, 6726, 6732, 6738, 6744, 6750, 6756, 6762, 6768, 6774, 6780, 6786, 6792, 6798, 6804, 6810, 6816, 6822, 6828, 6834, 6840, 6846, 6852, 6858, 6864, 6870, 6876, 6882, 6888, 6894, 6900, 6906, 6912, 6918, 6924, 6930, 6936, 6942, 6948, 6954, 6960, 6966, 6972, 6978, 6984, 6990, 6996, 7002, 7008, 7014, 7020, 7026, 7032, 7038, 7044, 7050, 7056, 7062, 7068, 7074, 7080, 7086, 7092, 7098, 7104, 7110, 7116, 7122, 7128, 7134, 7140, 7146, 7152, 7158, 7164, 7170, 7176, 7182, 7188, 7194, 7200, 7206, 7212, 7218, 7224, 7230, 7236, 7242, 7248, 7254, 7260, 7266, 7272, 7278, 7284, 7290, 7296, 7302, 7308, 7314, 7320, 7326, 7332, 7338, 7344, 7350, 7356, 7362, 7368, 7374, 7380, 7386, 7392, 7398, 7404, 7410, 7416, 7422, 7428, 7434, 7440, 7446, 7452, 7458, 7464, 7470, 7476, 7482, 7488, 7494, 7500, 7506, 7512, 7518, 7524, 7530, 7536, 7542, 7548, 7554, 7560, 7566, 7572, 7578, 7584, 7590, 7596, 7602, 7608, 7614, 7620, 7626, 7632, 7638, 7644, 7650, 7656, 7662, 7668, 7674, 7680, 7686, 7692, 7698, 7704, 7710, 7716, 7722, 7728, 7734, 7740, 7746, 7752, 7758, 7764, 7770, 7776, 7782, 7788, 7794, 7800, 7806, 7812, 7818, 7824, 7830, 7836, 7842, 7848, 7854, 7860, 7866, 7872, 7878, 7884, 7890, 7896, 7902, 7908, 7914, 7920, 7926, 7932, 7938, 7944, 7950, 7956, 7962, 7968, 7974, 7980, 7986, 7992, 7998, 8004, 8010, 8016, 8022, 8028, 8034, 8040, 8046, 8052, 8058, 8064, 8070, 8076, 8082, 8088, 8094, 8100, 8106, 8112, 8118, 8124, 8130, 8136, 8142, 8148, 8154, 8160, 8166, 8172, 8178, 8184, 8190, 8196, 8202, 8208, 8214, 8220, 8226, 8232, 8238, 8244, 8250, 8256, 8262, 8268, 8274, 8280, 8286, 8292, 8298, 8304, 8310, 8316, 8322, 8328, 8334, 8340, 8346, 8352, 8358, 8364, 8370, 8376, 8382, 8388, 8394, 8400, 8406, 8412, 8418, 8424, 8430, 8436, 8442, 8448, 8454, 8460, 8466, 8472, 8478, 8484, 8490, 8496, 8502, 8508, 8514, 8520, 8526, 8532, 8538, 8544, 8550, 8556, 8562, 8568, 8574, 8580, 8586, 8592, 8598, 8604, 8610, 8616, 8622, 8628, 8634, 8640, 8646, 8652, 8658, 8664, 8670, 8676, 8682, 8688, 8694, 8700, 8706, 8712, 8718, 8724, 8730, 8736, 8742, 8748, 8754, 8760, 8766, 8772, 8778, 8784, 8790, 8796, 8802, 8808, 8814, 8820, 8826, 8832, 8838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TEL : (213) 381-0081, FAX : (213) 381-001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5월 24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956-2900
2221 W. Colchester Dr., An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EL :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

<장학금을 지급함>

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솔로몬대학교대학원
Solomon University, SU

총장 Dr. Esther J. Baek Ph.D 백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

TEL : 213-381-7755 | FAX : 213-487-7373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School Code : 9480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p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놀라운 가격, 놀라운 혜택, 더 놀라운 절약!
놓칠 수 없는 기회!



Verizon, AT&T 가정용 전화 완전대체

글로벌 플랜

TAX 포함 ~~\$24.99~~ /월

\$9.99 /월

첫 3개월간, 이후 15개월간 \$24.99/월



중앙일보/중앙방송 인터넷 웹사이트 (www.koreadail.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30일 환불보장

로컬/장거리/한국 포함 국제전화 무제한

지금 가입하시면,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미국에서 나만의 한국전화번호를 갖는다!”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개통비(\$29.99) 면제

- 집전화 및 휴대전화로 한국 포함 29개국에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화!
- 미국전화번호 및 한국전화번호 무료제공!

- 기존 전화번호, 전화기 이용가능!
- 각종 부가 서비스 무료제공!
- 폰어답터 무료대여!

- 간단한 설치 및 이용방법
- 텍스 및 추가 수수료 없음.
- 365일 진정한 한국어 고객센터 서비스
- 최상급 회선을 통한 뛰어난 통화품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800-872-2902

온라인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 www.Korea.iTalkBB.com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디지털 시대의 우리집 전화]

iTalkBB

iTalkBB와 함께 성장하실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213-784-1133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은 통화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로모션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총 18개월 간의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서비스를 유지하는 경우 \$6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할인 된으로 출금계를 할당해 주겠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기동비\$29.99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안전하고 간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Super Store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태극 전사의 16강 진출을 기원합니다!

5월 한달 방문 하시는 분들에게 ALL THE REDS가 새겨진 멋진 T-SHIRTS를 드리며,
저희 딜러에서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급 타월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입하신 분 중 한분을 추첨하여 42" PLASMA TV를 드립니다
(경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딜러에 문의 바랍니다)

목회자 특별리스 및 원가세일

현재 목회하고 계신 목회자님들께
크레딧이 나쁘시거나, 없으셔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 제한)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중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드리는 푸짐한 사은품과 함께
태극 전사를 응원하세요!



5월 스페셜 세일

2011 최신형 현대 쏘나타
(O.A.C & PLUS TAX T.D.O \$2,999/12K MILE)
LEXUS만큼이나 좋은 차, 불티 납니다.
대량 확보로 가격 및 모델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185/3YR
(STK:053078)



2010 신형 제네시스
(O.A.C & PLUS TAX T.D.O \$3,999/12K MILE)
대형 세단의 중후함을 느껴 보세요.

\$357/3YR
(STK:101150)



2010 신형 제네시스 COUPE M/T
(O.A.C & PLUS TAX, COMP. INCENTIVE T.D.O \$2,999/12K MILE)
스포츠 카의 최 강자, 미래형 디자인과 힘을 느껴 보세요.

\$207/3YR
(STK:028090)



2010 신형 엘란트라
(O.A.C & PLUS TAX T.D.O \$2,799/12K MILE)
(목회자 특별 리스 해당 품목)
중소형 세단으로 연비 절감 효과

\$144/2YR
(STK:946788)



5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 2007 BMW 328i WHITE STK:PZ70863 \$21,890
-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P018925 \$28,890
- 2005 NISSAN FRONTIER SILVER STK:P461103 \$10,890
- 2008 NISSAN ALTIMA SILVER STK:P226495
- 2009 TOYOTA SIENNA LE BLUE STK:P277257
- 2006 VOLVO S60 WHITE STK:574836A
- 2009 HONDA ACCORD WHITE STK: P021316A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4.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함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 한판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 거리



찰리 정 스티브 장 앤디 김 스티브 박 지니 안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lose your income, we'll let you return it.